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Sook Kang¹, Jeong-Suk Kim²

강숙¹, 김정숙²

¹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Korea, skang@cnc.ac.kr

²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Korea, fshiche79@nambu.ac.kr

Corresponding author: Jeong-Suk Kim

Abstract: In the nursing field, various learner-centered learning strategie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required to achieve effective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based on learning outcom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move away from the traditional lecture-orien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is is a single-group pre-and post-similar experimental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on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37 second-year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 C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wo hours per week for 13 week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9.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Version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The result showed both self-esteem ($t=-4.438$, $p<.001$) and subjective happiness ($t=-3.32$, $p=.001$) of nursing student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is suggests that the accumulation of positive experiences in group activities through student-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to achieve the outcomes of parking education with interdependence improved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education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Repeated studies are required by establishing a control group in the futur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to nursing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3rd and 4th year through a similar curriculum to examine the effect,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Nursing Students, Cooperative Lear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요약: 간호학계에서는 학습성취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전략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Received: February 12, 2023; 1st Review Result: March 28, 2023; 2nd Review Result: April 25, 2023
Accepted: May 31, 2023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강의식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벗어나,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 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2 학년 학생 137 명이며, 연구방법은 2019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13 주 동안 차시 별 2 시간씩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 으로 기술통계 및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t=4.438, p<.001$)과 주관적 행복감($t=3.32,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주차 별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중심의 협동학습을 통해 그룹활동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들의 누적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켰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임이 확인되었다. 추후 대조군을 설정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유사한 교육과정을 통해 3,4 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에게 범위를 확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협동학습,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1. 서론

간호대학생은 다른 대학생들과는 달리 학교 내에서의 수업 외에 병원 등 다양한 환경의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1],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타 분야 전공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특히 이론수업과 병원 실습이 한 학기에 병행되는 교육과정으로 많은 학업량을 소화해 내야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지식 부족이 환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3].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긴장,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 및 반항, 과음, 약물남용 등의 신체적 질환까지 초래하게 되고[4], 개인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자아존중감을 더욱 저하시킴으로써 행복감이 낮아지게 된다[5].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의 행동, 적응, 건강한 성격 발달, 정신적 건강에 기반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함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6]. 즉, 간호대학생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게 되며 나아가 환자 간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행복감은 개인의 삶 전반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며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개개인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적인 경험의 빈도가 중요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삶에서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를 의미한다[8]. 특히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감을 반드시 경험하지 않더라도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되며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9].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6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10],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28점 만점에 19.8점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상자에게 전인간호 행위를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기쁨이나 삶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긍정적 정서인

주관적 행복감의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다[11].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며[12],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3]. 즉,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을 돕고 미래의 간호사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14].

이에 대학에서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단순 지식만 주입하는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15]. 간호학계에서도 학습성취에 기반을 둔 교육체계를 간호학과 인증기준에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여[16], 효과적인 학습성취 달성을 위해 강의식 위주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뛰어넘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전략 등을 요구하고 있다[17][18]. 특히 의사소통역량은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며[19], 간호현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20], 임상현장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 교육이 더욱 다양화되고 강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21][22].

따라서 간호 교육과정 중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과 인간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 등을 교육하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23][24]. 이와 함께, 의사소통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액션러닝, 플립러닝, 협동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25] [26]. 특히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이며 전인교육에 초점을 둔 학습 방법의 하나이다[27][28]. 이러한 협동학습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상호의존 과정 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므로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즐겁게 느껴지게 하므로[28],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커리큘럼이다.

협동학습은 그룹 안에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학습하게 되고 학습적 협동을 기르게 하므로 개인의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29].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행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은 개인적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은 향후 예비간호사로서 우리 국민의 미래 건강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30],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돕는 접근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본 중재 연구는 시도되었으나[30-33],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그룹활동에서 느끼는 경험들의 누적이 간호대학생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실습에 잘 적응하고 졸업이후에도 간호사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론 위주의 강의식 방식을 벗어나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전후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의 개발 및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제시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후 효과를 확인한다.
- 2)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전후 효과를 확인한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 연구이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간호대학생이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경험이 없는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후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33명을 제외한 13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7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t 검정에서 필요한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한 결과 paired t-test의 표본수는 12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탈락률 15%를 고려하였을 때 144명으로 산출되므로, 본 연구의 137명을 충족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6] 개발하고, Jeon(1974)[3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긍정문항 5개와 ‘자신을 종종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대체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부정문항 5개로 되어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hronbach's α 값이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78이었다.

2.4.2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하고[35] 임지숙(2004)[3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이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표현하는 7점 Likert 척도이다. 긍정적 문항은 척도에 표시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되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28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hronbach's α 값이 .86이었고, Lim[36]의 연구에서는 .76, 본 연구에서 .89이었다.

2.4.3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학과에서 지정한 교재를 참고하였으며, 정신간호학 교수 2인, 정신건강간호사 2인의 자문을 얻어 Table 1과 같이 최종 완성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1) 실험군의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1회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시행 전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처지 적용

간호학과 2학년 2학기에 전공기초 인문사회교육으로 개설되어, 주 2학점 2시간으로 운영된다. 총 15주 교육 중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제외하고 주 1회, 100분씩 총 13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운영

본 연구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동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운영 방법이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 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설계하였으며 한 분반에 41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협동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8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되,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위해 성별은 섞어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주차에는 인간관계를 경험을 위한 시작 및 준비단계로 교수자가 수업운영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조원간 별칭 짓기, 팀 명, 팀 빌딩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사전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2주차에는 자기개방 및 자기이해를 위해 교수자의 미니강의를 제공하였고, ‘나의 뇌구조 그리기, 인생곡선 작성, 나는 누구일까’의 개인별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개인별 책무성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그룹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 이후 그룹 간 대표학생을 선정한 후 발표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3주차는 타인과 만남의 과정을 그룹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게 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한 조아리의 창을 통해 자기진단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각자의 창의 크기에 대해 협동활동을 통한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지지하였다. 4-5주차에는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장단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어플을 통한 강점 찾기 활동과 에릭 번의 자아상태 모형에 대해 조원들과 협동학습을 하게한 이후, 자신의 자아상태를 성찰하도록 하였다. 6주차에는 교류패턴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협동학습을 통한 감사표현 역할극 및 가치관 경매활동을 하였다. 이후 오케이그램으로 자신을 진단하도록 하였으며 인생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다. 7-8주차에는 의사소통의 과정 경험과 기술 훈련을 위해 영화 ‘블랙’,

‘마빈스의 방’, ‘굿윌헌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의 클립핑을 통해 의사소통 유형 점검의 협동학습을 한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9주차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을 위해 공감, 반영, 탐색에 대한 학습을 하였으며, 실제 상황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통해 효과적인 공감, 반영, 탐색하기의 방법에 대해 협동학습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나리오를 보고 협동학습을 시작하도록 한 후, 각 팀에서 결정한 집단 의사결정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주차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비폭력대화모델을 학습하였고,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룹간 협동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기린언어식 표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2인 1조 짝을 지어 평가없이 관찰하기-느낌 확인하고 표현하기-부탁 표현하기 등의 방법을 훈련하였다. 11주차에는 의사소통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학습한 이후, 다양한 상황극을 통해 협동학습을 진행한 후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12주차는 상황 시나리오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반응을 탐색한 후 각자의 불안, 의존, 우울, 분노, 부정 등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고, 교수자가 제시한 상황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협동학습을 유도하였으며, 13주차에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클립핑을 시청한 후 대상자와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활동하도록 하였다.

[표 1]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운영

[Table 1] Oper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Stage	Week	Class Topic		Activities
Early	1	Interpersonal training through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 Orientation and understanding among group members	· Course Orientation · Formation of groups, name of team, establishment of rules, and nickname.
	2		· Self-opening and self-understanding	· Self-understanding for the beginning of a relationship
	3		· Understanding others through encounters with others	· Self-Opening, Joari's Window, · Experience meeting other people
	4		· Finding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 Find your strengths	· Human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analysis · finding your strengths
Middle term	5	Effective / ineffective check communication	· Know your communication style	· Understanding Eric Berne's Model of the ego State · Know your own ego state
	6			· Understanding one's own communication style through understanding exchange patterns · Expressing gratitude role play, clarification of values
	7		· Understanding and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 Experienc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training: Listening	· Find my communication style · Watch 'The Movie Black, Marvin's Room' and find your communication style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8		· Communication training: Observation without evaluation	· Find my communication style · Watching the movie 'Good Will Hunting', 'The Most Beautiful Parting In The World', 'A Man From New York', 'A Woman From Paris', inspection of therapeutic/Ineffective communication types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 training: empathy, reflection, and exploration skills · Communication training: Reinforcing expression skills after confirming desires, requests, and fee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Empathize, reflect, and explore · Confirming and expressing feelings, expressing requests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nonviolent communication model · Checking non-therapeutic communication sty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ing ineffective communication and apply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techniques · Non-violence model (NVC), giraffe language and jackal language · Ineffective communication: Coercion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communication problems · Closed communication Improvement dir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activities through various situational plays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and identifying subject characteri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therapeutic relationships according to situational scenarios
Closing	13	Wrap-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role in forming relationships · Wrap-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ationship, stages, facilitators, and barriers · Finding and presenting the qualities my after watching the movie 'The Wizard of Oz'

3) 실험군의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13회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 종료 직후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의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은 paired-test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22명(89.1%), 연령은 20-24세가 96.4%, 종교는 무교가 81명(59.1%)로 가장 많았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유사 수업 경험은 없음이 108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전망으로 69명(50.4%), 전공의 만족도는 보통이 58명(42.3%)로 가장 많았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 (10.9)
	Female	122 (89.1)
Age	20-24	132(96.4)
	25-29	3(2.2)
	≥30	2(1.4)

Religion	No religion	81 (59.1)
	Christian	39 (28.5)
	Catholic	9 (6.6)
	Buddhism	7 (5.1)
	Other	1 (0.7)
Communication similar courses	Yes	29 (21.2)
	No	108 (78.8)
Major choice motivation	Employment prospects	69 (50.4)
	According to aptitude	34 (24.8)
	Parental Invitation	26 (19.0)
	According to grades	8 (5.8)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5 (3.6)
	Usually	58 (42.3)
	Satisfaction	55 (40.2)
	Very good	19 (13.9)

3.2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

본 연구대상자에게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전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교육 전 3.55±0.44점, 교육 후 3.70±0.44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4.438, p<.001$),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 전 4.53±0.61점, 교육 후 4.73±0.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32, p=.001$).

[표 3]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

[Table 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N=137)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esteem	3.55±0.44	3.70±0.44	-1.51±4.00	-4.438	<.001
Subjective happiness	4.53±0.61	4.73±0.71	-.846±2.88	-3.435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에서 협동학습 교수학습방법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교육 전 3.55점에서 교육 후 3.70점,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 전 4.53점에서 교육 후 4.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방된 분위기에서 교수자는 안내자의 역할과 친밀한 태도

및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학생들은 동료들과 능동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들과 토의를 통해 생각을 교류하는 협동적 학습구조의 효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각 주차 별 학습내용을 통해 자기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학습 주차가 진행되어 짐에 따라 자기이해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패턴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룹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지지하는 지원적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으며, 공동의 목표 해결은 곧 학생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교육 전 3.55 ± 0.44 점, 교육 후 3.70 ± 0.44 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438, p<.001$). 이는 국외에서 협동학습에 관한 초기 연구자인 Graves와 Grave[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2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협동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Mcmanus와 Gettinger[29]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96%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의 중재를 받은 실험집단과 협동학습 프로그램의 중재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 자아존중감의 향상 정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38-40].

국내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100분간 총 12주동안 인간관계 의사소통 교과목을 적용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전후 점수차이를 보고한 Hyun과 Park[4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실험군은 사전평균 29.07점에서 사후평균 31.80점, 대조군은 사전평균 29.97점에서 사후평균 30.76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중재 전후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더 크게 향상되어 인간관계 의사소통 교과목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만을 중재로 진행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대조군을 확보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Lee등[4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 일치하였다. 다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간호대학생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Yoon과 Kim[43] 및 Kang[44]의 연구결과도 의미가 있었다. Yoon과 Kim[43]의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수해양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활동을 조절하여 또래에게 도움을 받고 제공하는 협동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중재 전후 자아존중감의 점수차이가 유의하게 더 상승되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Kang[44]의 연구에서도 협동학습을 제공받은 학습장애 학생과 협동학습을 제공받지 않은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는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 전 4.53 ± 0.61 점, 교육 후 4.73 ± 0.7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32, p=.001$). 한편, 본 연구의 교육과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주관적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 행복감을 측정한 Kim과 Chae[45]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 행복감 점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행복감의 사전 점수 3.23점에서 사후 점수 3.77점으로

학교 행복감이 0.54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 즐거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협동학습이 행복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교육이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본 일부 선행연구[46-50]들은 있지만, 협동학습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주관적 행복감 개념은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42][51]에서 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즉, 의사소통기술과 주관적 행복감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교육은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2학년의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운영하였다. 저학년의 경우는 의사소통 역량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부족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의사소통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51] 즉, 저학년에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이고 치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와 같은 교육이 저학년 시기부터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3,4 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비롯한 학습과정에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역량이 저학년에 비해 향상되긴 하나, 여전히 과중한 학습량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학교성적, 경제상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으로 자존감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학년은 임상실습현장에서 예비 간호사로서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면하여 긍정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므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와 유사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군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해 확대 해석함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대조군을 설정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측정도구를 달리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다양한 효과 검증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References

- [1] N. Seyedfatemi, M. Tafreshi, H. Hagani,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MC nursing*, (2007), Vol.6, No.11, pp.1-10.
DOI: <https://doi.org/10.1186/1472-6955-6-11>
- [2]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 Vol.12, No.2, pp.170-177.
- [3] M. R. Jeong, E. J.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 Vol.18, No.6, pp.414-423.
- [4]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affect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Ch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5] S. U. Park, M. K. Kim, Effects of Campu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Perfectionism on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2018), Vol.50, No.1, pp.63-70.
- [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7] S. M. Hae,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 Vol.18, No.1, pp.18-24.
- [8] S. A. Kang, H. R. Influence of Self-esteem, Career Identity, Grit on Nursing Students' Subjective happiness, *Kore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2022), Vol.6, No.2, pp.41-51.,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2.6.2.41>
- [9] E.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Strategy of University Student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0] J. I. Park, C. U. Park, H. Seo, Y. S. Youm,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0), Vol.44, No.2, pp.121-154.
- [11] G. Y. Jo,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 Vol.12, No.1, pp.160-16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 [12] L. J. Lee, A Study on Effect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n Job stress, *Journal of Asian Studies*, (2010), Vol.13, No.1, pp.251-290.
- [13] K. H. Jo, Y. K. Kim,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Happiness Expressed by Nursing Students through Collage Art Work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 Vol.16, No.1, pp.61-7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61>
- [14] K. Z. John,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of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Delacorte, (1990)
- [15] H. Kristy,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2018)
- [1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 (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 [17] Y. S. ROH, E. N. Ryoo, D. W. Choi, S. S. Baek, A Survey of Student Perceptions,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f Team-based Learning in a Nursing Cours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 Vol.18, No.2, pp.239-24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239>
- [18] S. Y. Beak, S. J. Im, S. H. Lee, B. S. Kam, S. Y. Yun, S. S. Lee, J. A. Lee, Y. N. Lee, S. Y. Lee, Instructional Analysis of Lecture Video Recordings and Its Application for Quality Improvement of Medical Lectur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1), Vol.23, No.4, pp.236-274.
DOI: <https://doi.org/10.3946/kjme.2011.23.4.263>

- [19]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 for education of Korea (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 [20] T. W. Reader, R. Flin, K. Mearns, B. H. Cuthbertso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 (2007), Vol.98, No.3, pp.347-352.
- [21] M. Y. Hyun, The Communication Training Needs of Nurses in the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 Vol.11, No.4, pp.443-451.
- [22] M. W. Kim, Development of Objectives in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 Vol.36, No.2, pp.389-402.
- [23] D. Chan, Development of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arning Environment Studies to Assess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Hospital as a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2), Vol.41, No.2, pp.69-75.
- [24] S. E. Idczak, I am a nurse: Nursing students learn the art and science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07), Vol.28, No.2, pp.66-71.
- [25] S. A. Kim, J. H. Park, H. H.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 Vol.34, No.3, pp.412-420.
- [26] E. S. Lee, Y. Eun, 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6), Vol.22, No.4, pp.567-5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567>
- [27]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 Vol.14, No.3, pp.301-3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3.301>
- [28] M. S. Kim, S. Y. Yun, Factors Influencing Flow state of Cooperative Learning Among Nursing Students: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Vol.13, No.10, pp.397-403.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0.397>
- [29] S. M. McManus, M. Gettinger, Teacher and Student Evaluations of Cooperative Learning and Observed Interactive Behavi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90, No.1, pp.13-22.
DOI: <https://doi.org/10.1080/00220671.1996.9944439>
- [30] M. H. Nam, M. R. Lee, Factors Influence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Vol.12, No.10, pp.363-37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0.363>
- [31] E. S. Kang, H. S. Jo, Y. H. Kang, Effects of the Group Interpersonal Training Program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 Vol.11, No.4, pp.501-509.
- [32] K. A. Shin, E. S. Lee,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 Vol.17, No.2, pp.149-158.
- [33] E. J. Bo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 Vol.137, No.10, pp.394-402.
- [34] B. J. Jeon, Self-esteem: The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Collection of Treatise*, Yonsei University, (1974), pp.107-129.
- [35]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99), Vol.46, No.1, pp.137-155.
DOI: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36] J. S. Lim, Relationships of a Self-enhancement Bias,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ld-adult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37] N. B. Graves, T. D. Graves, The Cultural Context of Prosocial Development: An Ecological Model. In D. L. Bridgeman (Ed.), *The Nature of Prosocial Development: Interdisciplinary Theories and Strategies*,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83)
- [38] D. W. Johnson, R. T. Johnson, *Cooperative Learning and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Theory and Research on Small Groups*, (2002)
- [39] M. A. Marriott, *Developing Self-Esteem Through Student Council, Principal Leadership*, (2004), Vol.5, No.1, pp.40-41.
- [40] L. Walker, *Reading Stories to Change the World, Principal Leadership*, (2005), Vol.6, No.2, pp.42-47.
- [41] M. Y. Hyun, E. O. Park,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8), Vol.14, No.1, pp.5-11.
- [42] H. S. Lee, E. H. Choi, M. Y. Hwang,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9), Vol.16, No.2, pp.1-22.
- [43] H. S. Yun, S. G. Kim,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on Learning on LEARNER'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Cooperative Spirit*, *Fisheries and Ocean Education Research*, (2001), Vol.13, No.12, pp.194-211.
- [44] B. H. Kang,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on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Peer Acceptance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ejo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45] S. J. Kim, S. E. Cha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for Changes of Attachment Levels and an Improvement of Subjective Happiness in Maladaptive Attachment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0, No.2, pp.608-617.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4.30.2.608>
- [46] G. Y. Jo, H. 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 Vol.12, No.1, pp.160-16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60>
- [47] K. W. Sun, H. S. Kim,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training program on hop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Conference on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0), pp.381-397.
- [48] J. H. Bae, K. Ju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Strength Program on the Enhance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Feeling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13), Vol.24, No.3, pp.113-147.
- [49] J. G. Yi, H. S. Park, *The effects of the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9), Vol.28, No.4, pp.362-372.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9.28.4.362>
- [50] J. H. Kim, H. 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6), Vol.25, No.2, pp.123-132.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006>
- [51] M. J. Park, D. N. Oh,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 Vol.17, No.11, pp.423-43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11.423>